



충성대신보

제182호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2020년 5월 1일 금요일



세계 유일의 편입학 사관학교, 꿈을 위한 최고의 선택!

2021학년도 정시생도(58기),
 2022학년도 예비생도(59기)
 사관생도 모집



세계에서 유일한 편입학 사관학교인 본교가 2020년 58기 정시생도와 59기 예비생도를 모집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 후 2년간의 생도과정을 통해 대학 3·4학년 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 졸업 학력이 인정되며, 전원 장교로 임관하여 취업이 보장되는 학교이다.

입학한 생도에게는 2년간 교육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별도의 품위유지비가 지급된다. 여기에 각종 장학금까지 준

비되어 있어 최고의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졸업시에는 일반학사와 군사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과 사관생도 생활의 경험으로 군내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체·체**를 겸비한 우수한 장교로 성장할 수 있다.

는 18~24세의 2·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3년제 2학년)이 지원 대상이며, 본교에 합격하고 나서 1년 동안 해당 대학에 재학한 후에 입교하는 방식이다. 즉, 합격 시 2022년에 3학년으로 입교한다. 정시·예비생도 모두 미혼이어야 하며, 2018년부터는 여자도 예비생도로 선발

구(지적능력) > 3차 선발은 1·2차 평가 점수+면접/체력검정, 최종 선발은 신체·인성 검사, 신원조회 합격자 중 1·2·3차 성적 합계 순으로 선발된다. 하지만 최종합격이 된 후에도 지원 학력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위·변조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임관결격사유가 확인된 사람, 입학 요건 또는 성적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허위 또는 불충족 사유가 확인된 지원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지원서 접수는 4월 27일 00시부터 5월 31일 24시까지이며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입학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aay.mi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인 고성진

● 모집일정

구분	지원서접수	1차 선발발표	2차 필기시험	2차 선발발표	3차 선발시험	최종발표
58기(정시)	4.27(월)~5.31(일)	6.12(금)	6.27(토)	7.10(금)	7.28(화)~8.21(금)	10.30(금)
59기(예비)					7.20(월)~7.28(화)	10.16(금)

● 지원서 접수기간/방법

인터넷 접수 (www.univapply.co.kr)

▶ 입시문의 : (054)330-3710~11, 3720


[kaay_1968](https://www.instagram.com/kaay_1968)

- ① 육군3사관학교 홈페이지 접속 → ② 지원서접수배너 click →
- ③ 회원가입 및 로그인(스마트폰 이용 가능) → ④ 지원서 작성(PC 이용) → ⑤ 입력사항 확인 →
- ⑥ 수수료 결제(카드결제, 계좌이체 가능) → ⑦ 수험표, 지원서, 인터넷 접수증 출력 →
- ⑧ 구비서류 3사교 등기 우송

모집인원은 총 550명이며 이 가운데 여자생도는 정원의 10%인 55명을 모집한다. 정시생도는 일반적인 편입에 해당되며 합격 시 2021년에 3학년으로 입교한다. 19~25세의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 및 졸업자, 2·3학년제 대학 졸업(예정)자가 지원 대상이다. 예비생도

하고 있다.

선발 과정은 총 3차로 구분된다. 1차 선발은 서류전형(정시: 대학성적+고교내신 혹은 대학성적+수능성적, 예비: 고교내신+수능성적 혹은 고교내신+공인영어성적), 2차 선발은 1차 평가 점수+필기시험(영어(모의토익)와 간부선발도

- 02 학교소식 | 생도 지휘역량 강화교육 실시
- 03 학교소식 | 코로나19 극복 관련 학교 소식
- 04 기획취재 |  이희완 중령 인터뷰
- 05 생도광장 | 훈육대 소개·생도 양케이트
- 07 오피니언 | 사설·충성대 칼럼
- 10 교양 | 건강상식·책 소개
- 11 동문·발전기금 소식 | 15·18기 동문소식
- 12 생도모집 | 58기(정시)·59기(예비)



56·57기 사관생도 지휘역량 강화교육 실시

성실함과 신독(慎獨)을 통한 자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학교는 지난 3월 24일 신학기를 맞이하여 56·57기 사관생도 1008명을 대상으로 학교장(소장 장달수) 지휘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사관생도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또한, 사관생도 본인의 임무인 학업과 심신단련에 정진함은 물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올바른 생도 생활의 방향 설정을 당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학교장은 학교의 역사와 발전상, 3

사 출신 선·후배들의 노력과 성과, 성공하는 군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과 자세 등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였고, 동시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생도들과 자유로운 소통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한편, 교육에 참석한 56기 김보선 생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사관생도로서 품위를 지닌 가운데 충성심과 명예심을 고양함은 물론, 장교로서 소양을 키워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56기기자생도 송승환, 57기기자생도 장석수



▲ 학교장(소장 장달수)이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지휘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사 및 단기간부사관, 전문사관 후보생 수탁교육 실시

학교는 지난 3월 16일과 23일,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65기 570명과 단기간부사관 후보생 41기 22명, 전문사관 28기 후보생 140명을 대상

으로 각각 5주, 4주, 1주간 수탁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이 본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게 된 것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학군교를 생활치료센터로 요청해 국

방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학군교는 기존의 학군사관후보생(ROTC) 교육 외에 학사, 단기간부, 의무·수의, 법무, 군종, 전문, 통역·기행사관 과정과 항공공준사관 과정을 전담하는 육군의 종합 장교양성 교육기관이다.

후보생들은 2011년까지 본교에서 학사 및 전문사관 후보생들이 장교양성 교육을 받고 육군 소위로 임관했기 때문에 선배들의 추억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됐다.

후보생들은 입교식을 거쳐 제식, 체력측정 등의 기본훈련 이수, '군인화'를 위한 군인정신 함양 및 군인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훈련, 장교의 기본소양과 리더십을 배양하는 강도 높은 장교 '신분화'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한편, 학생군사학교의 격리시설 해제로 인하여 입교 인원들은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순차적으로 전원 복귀하였다.

주무관 길진규



▲ 학사사관 65기 입교식



▲ 단기간부사관 41기 입교식



▲ 전문사관 28기 입교식

'충성대 봄' 사진 콘테스트 열어



충성대 봄 사진 콘테스트 대상 수상작

- 1 군사훈련처
- 2 생도 1훈육대
- 3 정비근무대

학교간부, 용사, 사관생도 참여

학교는 봄을 맞아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전 장병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병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충성대의 봄' 사진 콘테스트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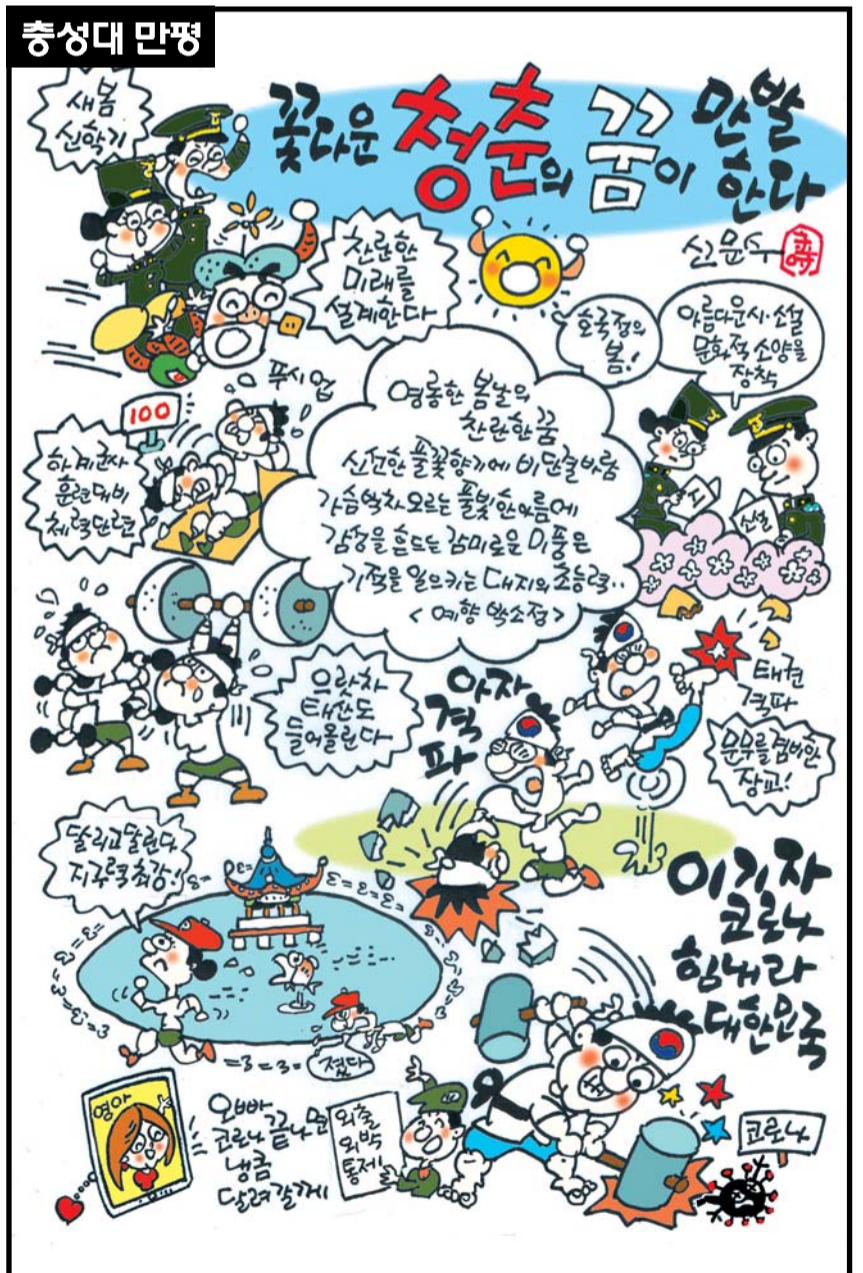
이번 사진 콘테스트는 '봄'을 표현하는 주제로 3개 부문(간부, 사관생도, 용사)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총 51팀(84점)이 참가하였다. 심사는 심사위원단 심사 점수(50%)와全军 투표 점수(50%)를 합산하여 각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 우수 작품을 각각 1점씩 총 9점을 선정했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포함한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팀에게는 학교장 상장과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사진 콘테스트에 참여한 군사훈련처 최준호 소령은 "몸과 마음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봄을 느끼는 행복한 모습을 담고 같이 공유하여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대상은 군사훈련처(간부), 1훈육대(사관생도), 정비근무대(용사)가 수상하였고, 최우수상은 컴퓨터공학과(간부), 2훈육대(사관생도), 정보통신근무대(용사), 우수상은 근무지원단 본부(간부), 6훈육대(사관생도), 본부근무대(용사)가 수상했다.

56기기자생도 윤서규, 57기기자생도 이형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및 후원활동 적극 펼쳐

사관생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대구·경북 주민은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 기부 및 후원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사관생도들은 지난 3월 17일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성금 250여 만 원을 기부하였다. 사관생도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민을 돕고자 자신들의 용돈 중 일부를 자율적으로 모금했다.

기부에 참여한 박종원 생도(4학년, 56기)는 "그동안 경북지역(영천시 고경면)에 위치한 학교 특성상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번 기부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라고 하면서, "사관생도로서 학업에 정진함은 물론, 심신단련에 매진하여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로 성장하여 국민에게 보답하는 장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유은수 생도(3학년, 57기) 등 5명(정지우, 박준녕, 박상운, 배호군)은 같은 전공학과 생도들로서, 평소 공부와 운동을 함께 하면서 남다른 동료애를 쌓아 온 사이이다. 이번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



▲ 유은수 생도 등 5명의 사관생도들(왼쪽부터 배호군, 박준녕, 유은수, 박상운, 정지우)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민을 돕고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100만원을 기부한 후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문구가 적힌 팸트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쓰고 있는 의료진을 도와야 한다는 데 함께 뜻을 모으고 100만 원의 성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선행을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를 통해 기부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더욱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3학년대 소속 사관생도들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KF94) 120매(84만 원 상당)를 구매하여 학교가 위치한 영천시에 기부하였다. 이 마스크는 영천시 방역대책본부를 통해 마스크 구매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었다.

대위 이지수



▲ 사관생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250여 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 후, 팸트를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올해 첫 충성의식



지난 3월 20일, 충성연병장에서는 2020년 첫 충성의식이 개최되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단정하게 예복을 차려입은 사관생도들이 의식행사를 통해 충성심과 명예심을 다지고, 지난 시간을 성찰함과 동시에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응원 메시지 전달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 국민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국방부 및 육군본부 공식 SNS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여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사관생도들의 씩씩한 기운을 담아 제작된 영상은 보는 사람들이 지친 마음을 추스르고 힘을

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본교에서 제작되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응원 메시지 영상제작에 참여한 56기 황선영 생도는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응원이 되어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무관 이경희



▲ 사관생도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코로나 나우' 만든 대구 중학생, 알고 보니 3사관학교 군인 자녀



평소 코딩과 웹사이트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최 군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가짜 뉴스를 보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부터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는 앱 개발을 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인터넷 검색과 코딩 연구 등을 통해 7일 만에 '코로나 나우'를 개발했다.

앱에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무엇보다 현재 국내 확진 환자와 퇴원 환자, 사망자 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편리하다. 매주 확진자 증감 추이와 지역별 국가 지정 격리병상 가동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 나우'가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다.

휴대전화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정확하고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앱인 '코로나 나우(Corona Now) 앱을 개발한 대구 중학생이 본교 학술정보원장이자 교수로 근무 중인 최재호 중령의 아들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최재호 중령의 아들 최형빈(15) 군은 '코로나 나우' 앱을 만든 계기를 "항상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이 돼야 한다는 군인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현하고자 '코로나 나우' 앱을 개발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최군의 아버지 최재호 중령은 "평소 아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 나우'에 광고를 게재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수익을 통해 대구동산병원, 대구의료원, 119구급대원 집결지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장병)들에게 보호장비 및 식·음료 등을 지원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주무관 김민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강한 애국심으로 나라 사랑 정신을 알리고 있는 이희완 중령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에 재직 중인 이희완 중령은 1976년생으로, 2000년 해군사관학교 54기로 졸업한 후 해군 항해소위로 임관하였다. 중위로 진급한 이후에 참수리 357정의 부정장이 되어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에 참전하였다. 그리고 전투 중 정장인 故 운영하소령이 전사한 뒤에는 현장을 지휘했다. 이 전투로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강한 의지로 재활과정을 거쳐 해군에 복귀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하여 이희완 중령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육군3사관학교 기획취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완 중령님 본인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고속정 참수리-357호정 부정장(당시 계급 중위) 직책으로 참전했던 장교입니다. 현재는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해군 인재 양성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제2연평해전 당시 간박했던 전투상황이 궁금한데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A 우선, 실제 전투 모습은 전쟁 영화 속에 나타나는 장면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좁은 공간의 군함에서 발생하는 전투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직접 내 전우가 피를 흘리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군함이 폭발하는 순간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북한의 치밀한 전투계획에 따른 기습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포탄과 총알이 참수리-357호정을 공격하였고, 우리 해군도 즉각적으로 함포사격을 하였습니다. 전투상황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그 와중에 지휘관인 故 운영하소령님은 적의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타장(故 한상국 상사), 기관사(故 서후원 중사), 함포 사수 2명(故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그리고 의무병(故 박동혁 병장)이 전사하였습니다. 반대로 북한 해군은 우리 해군의 공격을 받아 함정 반파 및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Q 실제 전투에 참전하신 입장에서 전투현장 지휘관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나 마음가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A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이기는 전투를 하려면 결국 전투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투현장 지휘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대원들의 팀워크를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의 발휘'라고 생각합니다. 전투지휘관은 부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 부대원 간 소통을 통한 조직력을 키우면 이는 곧 전투력으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전투와 같은 위기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Q 실전에 참전하신 전투 영웅의 입장에서 우리 군이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보강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A 전투에서 승리하는 요소는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이 있습니다. 유형전력으로는 탱크, 군함, 전투기 같은 무기 체계가 있고, 무형전력으로는 군인정신, 국가관 등의 정신전력 요소가 있습니다. 유형전력은 국력을 강화해서 다양한 전력들을 보유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첨단 전력들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전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승전을 위해서는 군인정신과 같은 무형전력을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신전력교육을 시행하는 이유도 다름 아닌 무형전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Q 영화 '연평해전'을 당연히 보셨을 것이고,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A 여러 가지 기억과 생각이 지나갔었습니다. 사실 영화 제작기간도 약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제작비가 부족해서 포기 직전까지 갔을 때 우리 국민들이 만 원씩, 이만 원씩 모금을 해주셔서 영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개봉되고 600만 명의 국민들이 관람을 하였고 무엇보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와 참전용사들의 애국심과 군인

정신을 공감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Q 전투 중 부상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아도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의 길을 계속 걸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전투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헬기로 수도통합병원에 도착해서 양쪽 다리를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 '전역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매우 혼란스럽고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당시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해군 장교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행운을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군에 몸을 담고서 애국하며 근무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군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은 운명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군 장교인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Q 이희완 중령님께서 생각하시는 조국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A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애국가이고, 그림은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국난을 극복하였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관리 능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조국 대한민국은 행복을 주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Q 제2연평해전과 같이 고귀한 희생들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제2연평해전 전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을 위해 1년에 한 번은 잠시나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권합니다. 일지도 정해 드립니다. 바로 현충일입니다. 시간이 되면 국립묘지나 호국원 등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방송으로 현충일 기념식을 시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 잠시라도 호국영령들의 고마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 애국하는 마음은 국력 신장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Q 앞으로 정예장교가 되어 국가를 수호하고 이끌어 나갈 사관생도들에게 귀감이 될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보배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사관생도 여러분들은 본인이 입고 있는 군복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끝으로 '조국, 명예, 충용'의 교훈을 항상 가슴 속에 품고 실천하는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6기기자생도 박다애 57기기자생도 신정원

훈육대 소개: 2중대

상무(尙武) 정신을 이어받은 광개토 중대

#1 중대의 역사·상징



2중대는 광개토 중대이다. 광개토대왕은 나라의 영토를 남북으로 크게 넓혀 만주와 한강 이북을 차지하는 등 고구려의 전성시대를 이룩한 왕이다. 광개토대왕은 북쪽으로는 연나라와 남쪽으로는 백제,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고구려의 튼튼한 힘을 과시하며 자신의 지경을 넓혔고, 숙신과 동부여마저 그 위력 앞에 떨게 하였다. 이러한 화려한 면면은 광개토대왕릉비의 비문으로 남아 우리에게 여실히 전해진다. “왕의 은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위엄은 온 세상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자 백성이 모두 생업에 힘쓰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풍족해졌으며, 온갖 곡식이 가득 익었다.” 이러한 광개토대왕 생애 동안 이룩한 공적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 2중대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광개토대왕의 상무(尙武) 정신을 본받아 국가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중대이다.

#2 중대가



형님은 막강의 투사!(투사!)
 아우는 불멸의 투사!(투사!)
 우리는 멋쟁이 용!(용!)사!(사!)
 전우애로 뭉친 우리들(우리들! 우리들! 우리들!)
 요동을 떨치던 개토개토광개토그 이상을
 겨레 겨레 겨레의 영광을 위!(위!) 해!(해!)
 승리가를 부를 때까지 가자
 가자 가자 중대여 광개토 중대여!(중대여!)
 우리가 태어나서 두 번 죽느냐
 젊은 피를 다해 싸워 이기자
 내게 맡기어다오! (하나! 둘! 셋! 넷!)
 조국의 푸른 강산을! (하나! 둘! 셋! 넷!)
 우리는 멋쟁이 용!(용!)사!(사!)
 막강 선봉 2중대
 2중대 퍼레이드 칼이다 칼!
 열!(칼!) 오!(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악! 악! 악! 2중대 하이팅 하이팅 하이팅!



#3 훈육관을 만나 - 훈육대장 소령 김용태

Q 훈육대장님의 좌우명이 궁금합니다.

A 생도 시절 좌우명은 ‘내 스스로 용기를 갖자’였다. 용기를 갖기 위해 지휘근무생도를 도전하게 되었고 그때의 좋은 경험이 용기를 갖게 해주었다. 용기를 갖게 된 현재 나의 좌우명은 ‘내가 있던 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자’이다. 내가 후에 떠나더라도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찾고, 누구에게나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크다.



Q 2중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A 2중대는 행복한 중대이다. 또한, 1등 한 명을 배출하기보다는 전체가 함께 나아가 높아질 수 있는 중대를 만들고 싶다. 더 나아가 성적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소통하고 배려해주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중대를 만들고 싶어서 ‘사람’을 항상 강조한다.

Q 직접 훈육하신 56·57기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A 첫째는 멋모르고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많은 것을 보고 깨달으며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몸이 좋지 않아서 나간 생도들을 보며 많은 안타까움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다. 나의 생도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고 생도들이 정예장교를 향해 한 발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내가 멈추면 안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며 교학상장(敎學相長)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현재 비슷한 분위기를 지닌 1·2중대를 보면 시작인 기초훈련부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생도로서의 정신, 목표, 의지를 기초훈련 때 세워져 임관할 때까지 꾸준히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잘 유지되고 있는 56, 57기들은 야전에 나가서도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는 기수가 될 것 같다.

Q 앞으로 56, 57기 생도들과 만들고 싶은 추억은?

A 훈육관으로서 추억을 남기려는 것은 본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꼭 하고자 한다면 자기개발 분야에서 생도들과 함께 목표를 정해서 열정과 끈기로 성취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이다.

Q 56기, 57기 생도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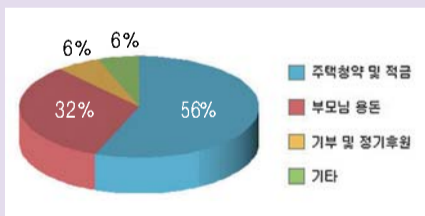
A 56기, 57기 모두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도전’과 ‘용기’, ‘사람’이다. 생도는 신독의 자세로 열정을 가지고 학업과 체력단련, 독서 등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 나가는 도전정신이 꼭 필요하고, 도전을 위한 용기와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회복력, 마지막으로 내가 실패하거나 힘들때, 또는 잡되고 기쁠때 격려로 힘이 되어주고 좋은 일에 함께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인 동기와 선후배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개개인의 내적가치를 쌓아간다면 내적가치와 외적자세를 균형있게 지닌, 함께 하고싶은 매력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56기 기자생도 송승환, 57기 기자생도 정용수



생도 앙케이트

생도들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품위 유지비 사용 방법



지난 3월 10일, 입학식을 마치고 3학년이 된 57기 생도들은 국가로부터 첫 품위 유지비를, 4학년으로 진학한 56기 생도들은 인상된 액수의 품위 유지비를 받았다. 이에 신문사에서는 ‘생도들이 생각하는 의미 있게 품위 유지비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투표는 총원 1001명 중 957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주택청약 및 저금(56%), 부모님에게 용돈(32%), 기부 및 정기후원(6%), 기타 항목(6%)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장 많은 생도들이 품위 유지비를 주택청약·저금 등의 예금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지출이라고 답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우선적으로 주택청약·저금이 가진 성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택청약·저금은 무의미한 소비를 지양함으로써 생도들이 경제 관념을 확립하고 생도생활 간 가장 안정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 올바른 소비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생도들이 미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주택청약·저금 등의 예금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지출이라고 답한 것이다.

두 번째로 표를 많이 받은 항목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이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다는 생도들의 의견

을 들어보았다. 먼저 A생도는 “충성 기초훈련을 마치고 입학식 때 부모님을 뵙지 못해 아쉬웠지만, 멀리서나마 첫 용돈을 보내 드림으로써 잊었던 생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또한, B생도는 “지난 설날 외박 간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 죄송했는데, 용돈을 보내 조금이나마 위로 해드리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출, 외박 및 면회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집에 가지 못하는 생도들의 아쉬움과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심을 엿볼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항목은 기부 및 정기후원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기부 및 정기후원을 선택한 C생도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들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적극적인 동참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부와 정기후원 활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소소한 기쁨이자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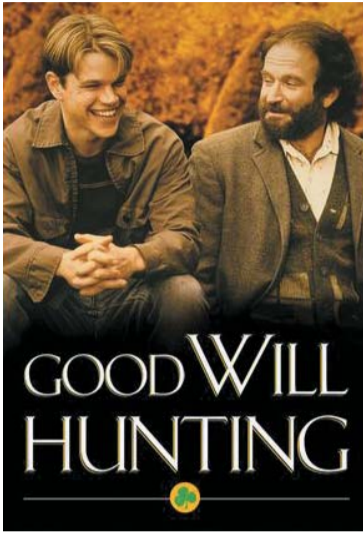
복”이라고 답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품위 유지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품위 유지비’라는 단어의 뜻 자체에 가장 부합되는 행동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생도들이 선택한 항목은 기타 항목과 PX 화장품 구매이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서적 구매, 휴대폰 비용 납부, 회식비용, 종교활동, 동기회비 등으로 품위 유지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더 나아가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PX 화장품을 구매한다고 답했다. 생도들은 품위 유지비가 입금되는 매달 10일을 기다리며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생도들 개인마다 지출하는 방식과 지출을 하는 항목은 다를 수 있다. 작은 편의를 위해,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끔은 돈에 대해 신중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에 투자할 줄 아는 어른스러운 56·57기 생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56기 기자생도 김성혁, 57기 기자생도 황선관



추천영화 **굿 윌 헌팅**(Good will Hunting)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스승들과 멘토들에게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 또한, 우리는 느끼고 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에는 인생의 스승, 멘토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멋진 영화 '굿 윌 헌팅'을 소개하고자 한다. 굿 윌 헌팅은 '구스 반 산트' 감독의 명작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배우들인 '로빈 윌리엄스', '맷 데이먼', '벤 에플렉'의 풋풋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이다. 또한, 영화는 영화의 주인공 역을 맡은 맷 데이먼 자신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는 미래가 보장될 수도 있었던 하버드대학 영어영문학과를 과감하게 중퇴하였고, 굿 윌 헌팅의 시나리오 쓰는 그가 과제로 썼던 소설을 시나리오화한 작품으로, 그의 실제 친구인 벤 에플렉과 함께 각색한 작품이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으나 어렸을 적 학대로 마음을 닫고 지내는 '윌' (맷 데

이먼)이 MIT 공대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교수가 MIT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어려운 수학 문제를 완벽하게 풀게 되고 그것이 수학과 교수 '제랄드 램보' (스텔란 스카스가드)의 눈에 띄게 된다. 교수는 이러한 그의 재능을 높이 사서 월을 키워보고자 한다. 반항아인 윌을 변화시키기 위해 심리학자 '숀 맥과이어' (로빈 윌리엄스)에게 맡기게 된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만나 서로를 공감하고 이야기하면서 윌은 점차 달라지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된다. 한 사람이 좋은 스승을 통해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내어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화다.

가끔 장황한 말로 상대방을 위로하는 사람을 보면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위로만큼 사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영화에서 숀은 자조하는 윌에게 한 가지 말만 한다. "네 잘못이 아니." 이러한 말에 윌은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그 말만 되풀이한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네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 더 필요한 순간이 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혹은 요즘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굿 윌 헌팅>을 추천한다. 영화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너무 힘든 하루를 겪었던 주변 동기, 선배, 후배 혹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

56기 기자생도 권정우
57기 기자생도 박군호



독서감상문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류시화 작가, 본명은 안재찬. 이름은 다소 생소할 수 있어도 류시화 작가의 작품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것이다.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로 알았더라면』 두 개의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198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서 당선되어 82년까지 《동인》에서 시를 50여 편 쓴다. 그러나 83년부터 90년도까지 활동을 중단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구도의 길을 떠난다. 그때부터 류시화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얻은 깨달음이 이후 작품에 깃들어 있다.

'삶에 대한 해답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작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삶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여러 스승을 만나며 여행을 다니고 많은 책을 읽은 노력의 결실이 책에 들어있다.

내가 처음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온전히 제목에 사로잡혀서였다. 날아가는 새를 떠올려보니 정말 뒤돌아보는 새가 있었나 싶었다. 오로지 인간만이 앞으로 걸어가다 과거에 사로잡혀 전진하지 못하고, 과거에 상처로 인해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해 뒤돌아보는 유일한 생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또한 살아오면서 삶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 많은 상처에



무너져내렸었다. 책을 읽고 나서 깨달은 점은, 나의 상처 난 곳을 통해 내게 빛이 들어온다는 사고의 전환이었다. 흔히 담배락은 빈틈없이 견고하게 지어져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의 담배락은 많은 구멍이 있다. 이는 바람이 통과해야 무너져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일반 상식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렇듯 이 전에 상처들을 통해 내 삶이 더 견고해지고 내면의 단단함이 작가가 내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였다.

'생도'란 단어를 어학 사전에 검색해 보면 '사관학교의 학생으로 장교가 되기 위한 전 단계에 있는 사관생도의 줄임말'이다. 생도인 우리는 아직 미완성 단계의 존재들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기도 한다. '생도'라는 단

어의 또 다른 뜻에는 '살아가는 방도'가 있다. 아직은 '미완성 단계의 존재들'이지만 삶을 통해 해답을 찾는 중에 만난 이 책이 우리 생도들에게 '살아가는 방도'의 빛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나는 미완성의 존재인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도를 알려주는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이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든 나쁜 일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고 한다. 죽은 새가 되어 날갯짓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올 미래를 꿈꾸며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자. 생도들이 남은 기간을 지내며 내면적으로 강해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56기 기자생도 박다애

5부회 소개(여단)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교훈, 지휘통신, 공보정훈

이번 호부터 앞으로 4회에 걸쳐 생도대의 공식적인 생도자치근무 제대인 '5부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5부회란 여단 지휘부, 명예위원회, 동기회, 생도문화개선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를 말한다. 이 중에서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해에 소개한 바가 있어서 생략하고 남은 4개의 위원회를 여단 지휘부부터 순차적으로 소개하겠다.

여단 지휘부는 생도 지휘근무제대로서 여단장 생도와 부 여단장 생도를 필두로 7개의 참모부서와 실무생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여단장 생도는 생도대장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생도 여단과 생도 전체를 지휘 통제한다. 각종 행사 및 위원회에서 지휘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며, 5부회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부여단장 생도는 여단장 생도 부재 시 여단 본부를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하며, 각각의 참모 부서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생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종합하고 해결하는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한다.

여단장 생도와 부여단장 생도 휘하에는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교훈, 지휘통신, 공보정훈까지 7개의 참모 부서가 있



다. 인사는 사관생도의 행정예규 이행준수를 관리 감독하고 인사행정업무(환자 및 출타자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도 군기강과 관련된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정보는 지휘근무자의 비상연락망 체계

를 확립하고 보안과 관련하여 생도들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군사보안 교육자료를 전파하는 등 보안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다.

작전은 생도들의 당직근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생도들의 학습

군기와 더불어 자격인증제 취득을 확인·감독하고 당직실 구성에서부터 운용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군수는 보급품 불출과 관리를 담당하

며, 생도들의 위생관리, 정량배식 등을 확인하는 급양감독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생도 메뉴회의에 참석하여 생도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교훈은 주간훈련예정표에 의한 원활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확인하고 문화 및 체육활동과 관련된 주말 프로그램, 다양한 학술 활동을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휘통신은 월 단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를 주관 및 확인하고 있으며, 생도들의 전산장비와 관련하여 정비, 물품 관리 등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방송실 운영과 개인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과 관리를 도맡아서 하고 있다.

공보정훈은 충성대 신문 및 국방일보의 배부와 홍보를 전담하고 있으며, 정신 전력교육, 초빙강사 소개, 학교문화행사 등 공보정훈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신문사 기자생도 및 방송부와 연계하여 제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56기 기자생도 윤서규
57기 기자생도 황희진

사설

서해수호의 날, 호국영웅들의 희생정신 되새겨야

지난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서는 서해수호 영웅들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엄수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전사자 유가족,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등 1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규모는 비록 축소되었지만 '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토수호의 의미와 전 국민의 코로나19 극복의 지를 담아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 '그날'은 서해수호 3개 사건(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을 통칭하고, '지키겠습니다'는 전사한 호국영웅들의 정신을 이어 국토를 수호하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의 자유와 평화가 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신임 간호장교들과 군의관들, 예비역 간호장교와 국군 장병들이 의료지원과 방역 및 소독작업에 나서며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 못지않게 국민의 군대로서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을 실천하며 앞장서서 애국을 실천하고 있다.

서해수호의 날을 통해 군 장병들의 가슴 속에 서해수호 영웅들의 애국심과 우국충정이 이어지고 국민의 기억 속에 애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맞서 조국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



▲ 제5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 사진(위), 천안함 46+용사 묘역 참배 사진(아래)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6명 전사)과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26일, 46명 전사 및 1명 순직),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23일, 2명 전사)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55인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201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하였다. 서해수호의 날을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정한 이유는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발생한 국군의 피해 중 가장 컸던 '천안함 피격 사건'이 2010년 3월 26일 금요일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강조하였듯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와 연결해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이 필요한 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았다. 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어 준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바로 그 애국심의 상징이며, 이어 영웅들이 실천한 애국심은 조국

민과 함께 되새기고, 6·25전쟁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안위의 소중함을 다져 국민의 안보의식을 결집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이 가능하다는 범국민적 인식 확산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민적 호국 안보의식과 통일 의지 또한 고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가 되는 해이다.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55인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고 전 장병은 물론 모든 국민이 굳건한 안보의식을 함양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군사력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길러 강한 안보를 통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미래 군의 주인공이 될 사관생도들에게

충성대 칼럼

중령 박주오(이공학처 무기시스템공학 교수)



1985년 6월 육군3사관학교에서 병기 장교로 임관한 후 12년간 정비부대 지휘관 및 참모 생활을 수행하다가 사관생도 33기부터 학위교육을 실시한 지 벌써 23년째가 되었고 이번 일반화 학기가 군복을 입고하는 마지막 강의가 되었다.

야전부대의 실무경험과 전공학문 분야를 접목하여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교육을 했지만, 사관생도 개개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사관생도와 교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사관생도는 장차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적이라도 막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교수들도 이에 상응하여 전공지식은 물론 국가안보에 대한 투철한 정신 무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군 생활을 통해 장교로서의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자유를 지키며 이를 해치려는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적은 누구이며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무기로 제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생각해야 한다. 전쟁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도 특히 무기체계의 변화가 가장 복잡다단하게 발전되어왔다. 인류의 탄생으로부터 천여 년 전까지 창, 칼, 화살 등 단순한 무기체계가 중심이 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육·해·공의 다양한 무기체계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현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무기체계가 개발되었다.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개발되어 나오는 신무기체계에 대해 적보다 훨씬 더 많이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

둘째, 존중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어떠한 분야에 최고가 되었을지라도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유사 이래 가장 큰 영토를 지배했던 칭기즈칸의 어록에 보면 정작 본인은 자기 이름조차도 쓸 줄 몰랐으나, 부하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고 한다. 오늘날 굉장히 미분화되고 다양한 사회에서는 더욱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지위나 직책이 올라갈수록 본인이 만물 박사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이나 회의 시 미리 시간을 잘 판단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가능한 한 준수해줌으로써 서로에게 중요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공짜를 바라지 말자. 삼십년 전만 해도 소위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거리를 활보하는 장교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볼 수가 없다.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말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물질이 있어야 그것을 변형시켜 새롭게 만들 수가 있다. 전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예산을 고려하고 정신적으로는 무에서 유의 창조가 가능하지만, 물질에 이를 결부시킬 경우 부대원의 사기와 더불어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저하시킬 수가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십여 년 전에 소나무 5천 그루 등 나무들을 얻어와서 심었으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나무는 거의 없다. 기존에 잘 자라고 있던 좋은 소나무에 솔잎혹과리 병을 학교 내에 감염시켜 남부신림청 방제 및 학교 자체적 방제를 서너 차례 실시하여 소나무를 치료했던 적이 있다. 만약 어떤 장소에 어떤 수종이 필요하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하여 장시간에 걸쳐 잘 가꾸면 된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예산을 반영하여 이들을 수행해야 한다.

끝으로 사관생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100년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열심히 잘 생활해 주길 바란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사회 저명인사 칼럼

문성 목(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3사 13기, 예.준장)



※본 칼럼은 필자의 요청과 더불어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식체로 작성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56기와 57기 후배 생도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저는 충성대를 졸업하고 장교의 길을 먼저 걸었던 선배로서 여러분 모두 훌륭한 장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도 시절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면서 사관생도 생활을 소중하게 보내라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충성대의 문을 두드렸겠지만, 이제는 모두 국가안보의 간성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원하는 장교가 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6기 생도들은 벌써 1년의 생도 생활을 보냈고, 57기 생도들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미래 나의 모습은 오늘 내가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곳은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충성대입니다. 많은 선배들이 여기를 거쳐 장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1974년부터 2년간 생도 생활을 보냈습니다.

사관생도 기간 중 공부와 훈련, 일을 즐긴다면 반드시 ‘성실함’과 ‘유능함’을 구비한 장교가 될 것

사실 당시 장교의 삶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기왕 장교가 되기로 한 만큼 인정받는 탁월한 장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생도 생활이 비록 어렵고 힘도 들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생도 2학년 때 제 인생의 훌륭한 멘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충성(忠誠된 사람)’이라는 구절(딤후2:2)을 보여주시며 여기에는 ‘성실함’과 ‘유능함’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구비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성실한 경우 어딘가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반면, 능력이 출중한 경우 우쭐하여 성실함이 부족하다면서, 충성된 사람이란 두 가지 자질을 구비해야 된다면 이 둘을 잘 연마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멘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실함’과 ‘유능함’이라는 두 가지 자질 연마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성실함이란 훌륭한 인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신뢰받고 존경받는 인격입니다. 저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도 믿을 수 있겠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성품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저는 본받고 싶

은 훌륭한 대상을 마음에 정해놓고 매일 아침 그분의 인격을 묵상하며 한가지씩 실천했습니다. 둘째, 유능함이란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리더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소양 등의 역량입니다. 저

는 생도 2학년을 시작하면서 인문적 교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생도생활이지만 다소 무리하게 매주 1권의 독서를 결심하고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책을 읽고 짧은 독후감도 기록했습니다. 1년 동안 50권이 넘는 고전과 교양서를 읽었습니다. 생도 생활에서 이런 실천이 임관 이후 장군이 되기까지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 삶의 열매, 내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하려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고락(至高樂)’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관생도 기간 중 공부를 즐기고, 훈련도 즐기고, 일도 즐기면서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실함’과 ‘유능함’을 구비한 충성된 인재, 훌륭한 장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 The Better Life

선불카드 사용 빅데이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미래의 군사발전 이야기 ⑥

제갈덕주(꿈창작연구소 소장)



지난 2월 19일 대구에서 신천지 사건이 터지면서, 국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공세로 돌아섰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현재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세계적 위기이며, 이 위기를 선도하는 국가가 향후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전세계 모범 국가로 주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 만나는 상황에 끊임없이 대응하며 새로운 삶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앞서 드론 관련 칼럼을 통해 미래의 군사 전략은 ‘공성전’이 아닌 ‘수성전’일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이는 얼마 전 미국의 드론 암살 작전이 시행되고, 그 직후 세계가 한국의 안티드론 산업에 주목한 것을 통해 증명되었다. 서서히 세계는

스마트 시대로 이양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실질적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는 그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70년 가까이 군사적 긴장감 속에 살아온 한반도, 그리고 수많은 경제 위기와 국제사회의 압력을 견뎌온 경험. 이 모든 것이 응축되어 현

과감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빅데이터를 시민사회와 함께 의미를 해석할 때 또 다른 미래가 펼쳐져

재 전세계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미래사회 선도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제는 교육과 경제이다. 가장 먼저 지역 확산의 조짐이 보이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낸 한국의 경험은 이제 세계적 모델이 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은 이후 한국이 맞이하게 될 상황과 그 대처법이 또 다른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나

타낸다. 현재 한국이 맞이한 상황은 이러한 전염병 확산 속에서도 ‘생활(life)’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과 ‘경제’이다. 코로나 사태를 직면했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했다. 정책과 시민들의 참여가 일치하여 한국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벌기 위해 한국의 교육 당국은 전 교육현장의 ‘비대면 강의’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었고,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러한 비대면 강의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학기를 지나게 되면 대한민국의 전 교육현장에서 그것이 완전히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자연스럽게 연

동되는 초연결사회의 진입이 바야흐로 시작된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기회일지 모른다.

그러한 속에서 ‘경제 활동’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속 여파가 앞으로 최소 3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 3년 동안 한국 사회는

기본소득이나 사회안전망에 기반한 새로운 소득 창출 모델을 구현해 내야 한다. 이것은 최적화된 생산과 소비를 통해 불필요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핵심이 있다. 4월부터 시행될 ‘긴급안정자금’ 내지는 ‘재난기본소득’은 그 밑거름이 될 것이라 보인다. 핵심은 ‘선불카드’의 사용과 ‘빅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금 지원’을 향후 3년간 계속 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 선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최소 ‘3개월’ 정도의 소비 패턴을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전무후무한 ‘생활경제 빅데이터’가 축적되는 것이다. 이것은 9월부터 준비할 내년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 기반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선도국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투명성’이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동선’ 정보를 개방했던 것처럼, ‘선불카드’ 사용에 대한 ‘빅데이터’를 과감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그 데이터의 의미를 함께 해석해 나가야 한다. 시민사회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었을 때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 위기 속의 대한민국, 그러나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때이다.

유엔참전국가기념비 탐사기 1화
춘천 에티오피아군 참전기념비

‘초전박살’ 에티오피아군 강뉴대대

1950년 6월 25일 새벽, 포성과 함께 1129일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다. 그런 우리의 곁에는 낯선 나라에서 먼 길을 달려와 준 유엔참전국들이 있었다. 16개국(병력지원국)에서 모인 유엔군은 평화를 위한 마음과 송고한 희생정신으로 우리와 함께 싸웠고, 함께 이 땅을 지켜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6·25전쟁도, 그들의 송고한 희생도 모두 잊어가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엔참전국들의 기념비를 찾아가 보고, 그들의 참전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새겨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6·25전쟁 중에 아프리카에서 지상군을 파견한 유일한 참전국 에티오피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춘천으로 향했다.



▲ 에티오피아군의 참전 모습 기록 사진들(에티오피아 참전기념관 사진 촬영본)

6·25전쟁이 발발하자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는 “한국의 위기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유엔의 결의에 적극 지지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의 물자지원과 파병 요청에 약 1,200여 명의 보병대대 파견을 결정하였다.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던 황실근위대원으로 이루어진 첫 파병부대는 1950년 8월에 창설되

었다. 에티오피아 역사상 최초의 해외파병이였기 때문에 이들은 약 8개월간 영국군 교관 지도하에 전투훈련을 실시하였고, 1951년 4월 13일 출정 신고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셀라시에 황제는 “국제평화와 인류의 자유 수호를 위해 침략자에 대항하여 용전하라”고 격려하며, 이들에게 ‘강뉴대대’라는 호칭을 부여했다. ‘강뉴(Kagneu)’라는 단어는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다’와 ‘초전박살’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강뉴대대는 그 이름에 걸맞은 용맹한 정신과 필승의 전적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용맹함이 최초로 빛을 발한 순간은 바로 1951년 9월 21일 적의 군수물자 보급을 막고 전진기지를 만들기 위한 ‘클리버 작전’이었다. 적에 대한 공격을



담당한 강뉴대대는 일진일퇴의 백병전이 벌어지자 뛰어난 총검술로 적을 압도하였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고, 많은 유엔군들에게 강뉴대대의 강인함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었다.

에티오피아는 1,170명 규모의 1개 보병대대를 매년 교체하며 파견하여 총 6,000여 명이 참전하였고, 편지불 전투, 김화지

구 전투 등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에티오피아군은 전쟁 기간 중에 253전 253승의



▲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전경(왼쪽), 에티오피아 참전기념비 모습

기적같은 기록을 남겼다. 단 한 번의 전투에서도 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122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였고, 536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나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적의 포로가 된 사람이 없었다. 적의 포로가 될 수 없다는 강한 정신력과 끝까지 전우를 포기하지 않는 단결력이 엿보이는 결과였다. 강뉴대대는 혁혁한 공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사실, 강뉴대대의 활약은 전쟁 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순수 전투병력으로 구성되었지만 그들은 전쟁 중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위해 ‘보화고아원’을 설립하여 한국 아이들을 보살폈으며, 적십자사 소속의 유엔군 간호사를 파견해 의료분야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휴전 후에도 유엔 국제이동 긴급기금, 교회세계봉사단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전후복구에 이바지 하였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머나먼 길을 달려와 마지막에는 전쟁고아들까지 챙겼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에티오피아를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미안함을 넘어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에티오피아 참전기념관 맞은편에는 ‘에티오피아군 참전기념비’가 우뚝 솟아있다. 평화라는 신념을 몸소 보여주었던 ‘강



뉴대대’를 기억하기로 다짐하면서 그 기념비 앞에서 고개를 숙여 묵념을 올렸다.

※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의 자유와평화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참전 용사 가족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후원회를 설립해 활동해오고 있다.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www.myethio.net 로 접속하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6·25전쟁과 유엔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5)

‘강뉴: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 (키몬스스크르딜스 저, 2010)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제공자료

※ 국방정신전력원 블로그에서 더욱 다양한 정신전력 교육용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jungsin3560>
글/사진. 허호영(국방정신전력원 전문연구원)



지역문화탐방 7

경주 남산을 가다

경주의 남쪽에 있는 남산은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산이다. 북쪽의 금오봉과 남쪽의 고위봉을 중심으로 동서로는 4km, 남북으로는 10km의 타원형으로 한 마리의 거북이가 경주에 들어와 엎드린 형상으로 깊은 골짜기와 변화무쌍한 능선을 가지고 있어 작으면서도 작지않은 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태어난 나정과 도성을 지켜온 남산신성, 망국의 한이 서린 포석정, 불교 문화의 정수인 수많은 불상과 탑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신라 천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옛날, 바위 속에 부처와 보살이 머물고 있어 백성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으며 불교의 성산으로 신앙의 대상이었던 남산은 이제 수많은 답사객과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함께한 남산으로 떠나보자.

남산의 여러 골짜기 중에서 가장 불상이 많이 남아있는 삼릉계곡의 입구에는 아달라왕, 신덕왕, 경명왕의 무덤인 삼릉이 있다. 오랜 시간 고요하게 잠들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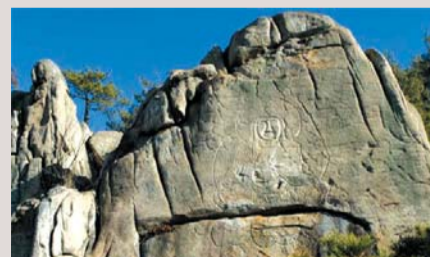
▲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

있던 불상을 옮겨놓은 것으로 머리가 없지만 아름답게 매듭지어진 수실과 선명한 옷 주름이 생생하여 부처님의 인자한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석조여래좌상의 북쪽 능선으로 걸음을 옮기면 푸른 소나무 사이로 미소짓고 있는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입상이 있고, 삼릉계곡 선각육존불이 골짜기 왼쪽에 자리 잡은 넓은 바위에 새겨져 있다. 넓은 바위의 왼쪽과 오른쪽 면에 새겨진 여섯 분의 불상은 모두 선으로만 표현되어 마치 신비로운 불화를 보는 듯한 느

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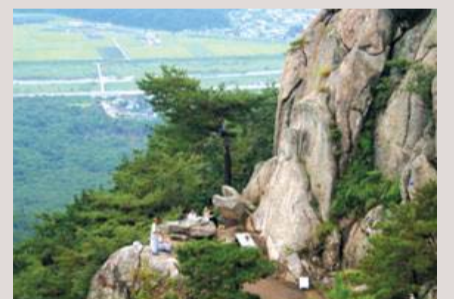
선각육존불을 지나 길을 올라가 보면 높이가 10m 정도 되는 넓은 절벽 바위에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부처님의 투박한 얼굴과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미완성으로 보이는 여래좌상은 수행하는 부처님의 소박한 위엄을 담고 있다.



▲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선각여래좌상 오른쪽으로 상선암으로 오르는 등산길이 있다. 상선암을 오르다 보면 상선암 뒤로 솟아있는 상사바위를 볼 수 있다. 남산신 상심이 살고 있다는 바위로 많은 사람이 아들을 낳기 위해 기도하러 찾아왔다고 한다. 상사바위에서 아래를 보면 6m 높이의 커다란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을 볼 수 있다. 남산

에서 두 번째로 큰 불상으로 바위 속에서 부처님이 나오는 순간을 표현한 불상으로 그 커다란 모습에 감탄하게 된다.



▲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이러한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남산은 “신라의 역사는 바로 남산에서 시작하여 남산에서 끝맺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산 전체가 하나의 화폭이 되어 신라의 역사를 담고 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꽃들이 만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방문하기는 힘들지만, 어려운 이 시기를 이겨내고 사태가 종식된 후 가족들과 함께 경주 남산으로 여행을 떠나 지친 마음을 달래고 휴식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을 가들려 본다.

56기 기자생도 최정운
57기 기자생도 지하은

감염병 유행 시 '마음 건강' 챙기기

건강상식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학 교수 소령 황선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단계 최고 위험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보건당국은 감염병 치료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예방적 격리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두통, 소화불량, 불면과 같은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불안, 우울, 분노, 고립감과 외로움 등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더욱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수많은 미디어 정보에 노출되다 보면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유행이 지속될수록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에 관심을 두는 심리적 방역이 중요한 시점이다.

감염병의 특성상 타인과의 접촉에 민감해지고, 발열이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코로나19와 연관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매우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렇지만 불안 정도가 강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경우 신체적, 정서적으로 소진을 경험하고 무력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때 불안으로 야기되는 몸과 마음의 반응을 인식하고,

심호흡, 스트레칭, 근육 이완, 명상, 조용한 음악 듣기, 마음 챙김과 같이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이 정신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과도한 미디어 정보에 노출되는 경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2차 심리적 외상을 경험할 수 있다. 신종 감염병은 축적된 연구 데이터가 부족해 치료나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조급함을 잠시 가라앉히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되 하루 중 검색 횟수를 정해서 필수 정보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생활하여 생체리듬(circadian rhythm)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체리듬은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일어나며, 우리의 몸

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면, 식사, 운동에서 규칙적인 습관이 필수적이다.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낮에는 야외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햇빛은 생체리듬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며, 야간에 수면을 유도하는데에도 관여한다.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고, 늦은 밤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취침 전에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활동하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고 피로가 가중된다. 최적의 수면 환경을 위해 잠들기 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삼가도록 한다. 휴대폰에서 나오는 빛(블루라이트)은 수면 유도 호르몬(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고, 망막 시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 또 하루 중 안 좋았던 경험이나 앞으로 해야 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명상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편안한 수면을 유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감정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은 감염병 유행 시기에 심리적 안정과 나아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긍정심리학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우리가 좌절에 부딪혔을 때 내적인 강점을 발견하고 유머 감각, 열정, 낙관성을 통해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친구와 동료,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냄으로써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면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심리학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심리상담 등의 정신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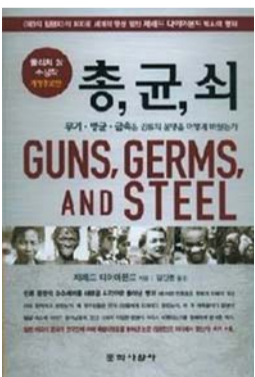


책 소개

총, 균, 쇠

제레드 다이아몬드 지음 / 김진준 옮김

같은 시간을 살아온 우리, 왜 다른 옷을 입고 있는가



지금 지구의 한쪽에서 우주선을 발사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창과 화살로 사냥을 하고 있다. 인류 발전은 어째서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는가. 인류는 같은 시간을 보냈으면서 왜 각자 다른 문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석기시대의 수렵, 채집 단계를 넘어서 농경을 시작한 문명들은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명들은 질병과 무기의 도움을 받아 다른 문명들을 짓밟으며 자신들의 영역을 새로운 지역

으로 확장했다. 이 책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무기, 병균, 금속이 1만 3천 년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그동안 쉽게 꺼내기 어려웠던 문명발전의 차이라는 주제를 이 책은 망설임 없이 속 시원하게 담아내고 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글 · 그림/마음의숲 펴냄

우리는 자기 자신 외에 그 무엇도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다



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에 있어 알아두면

좋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심폐소생술보다, 이어폰 줄을 꼬이지 않게 하는 법보다, 연말 소득공제를 하는 법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행복을 다루는 노하우. 즉, 당신의 행복에 관심이 필요한 법이다.

책은 총 6장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을 담고 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세상살이에서 세상이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력과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초격차

권오현 지음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격'

녹색 견장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2/4 분기가 다가온 지금, 부하들과 함께 우수한 조직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다짐이

무색하게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리더가 많을 것이다. 특히, 군은 다른 부대, 특히 맞서야 하는 다른 부대와 격차가 크게 날수록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군인에게 '초격차'는 늘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은 좋은 조직을 위해선 남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추천한다. 저자는 리더, 조직, 전략

그리고 인재의 네 가지 주제로 '초격차'를 논한다. 자신이 비전만 제시했거나,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있거나, 인사 배치 문제로 고민이라면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책을 읽고 나면 생각에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다시 구체적으로 할 일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당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당신만큼 해내지 못할 것이다.

56기 사관생도 금성형 57기 사관생도 이용택

3사 15기 동기회장이 · 취임식

지난 2월 14일 3사 총동문회관에서 15기 동기회장이 · 취임식이 보름회(15기 동기회) 중앙 및 중대, 지역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총 3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는 2020년도 정기총회, 2부는 동기회장이 · 취임식, 3부는 기념촬영 및 만찬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1부에서는 동기회 운영결과 및 감사보고, 2020년 사업계획 안건 심의가 이루어졌고, 2부에서는 동기회장이 · 취임식, 감사패 수여가 이루어졌다. 특히, 동기회장이 · 취임식은 한동주(14기) 총동문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이 · 취임식 축하와 함께 4년간 동기회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동기회 발전에 기여한 조서환 동기회장(전임 동기회장)과 김동찬 사무총장(전임 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각각 수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였다.

3부 만찬 시간에는 새로 취임한 임성호 동기회장이 취임사를 통해 “3사 15기 동기회를 대표해 더 나은 동기회를 만들겠다. 나아가 앞으로 동기회뿐만 아니라 총동문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3사 총동문회



▲ 3사 15기 동기회장이 · 취임식에 참석한 15기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3사 18기 임원회의

동기회 운영과 2분기 주요 예정사항 40주년 행사 토의

3사 18기 임원 회의가 지난 2월 20일 총동문회관 회의실에서 이병렬 동기회장(예. 준장)을 비롯해 중대별 회장, 동기회 임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20년도 동기회를 이끌어갈 새 임원진 편성 후 동기회 운영사항 토의, 2분기 주요 예정사항과 2021년도 시행 예정인 임관 40주년 행사 토의를 실시했다.

먼저, 동기회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 회

비 관련 사항과 각종 시설 이용 시 일정 금액을 해당 업체에서 총동문회에 기부하도록 하는 사항을 홍보했다. 이후 현충일 행사 시 격조 있는 행사가 되도록 서울과 대전 행사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내년엔 시행하는 임관 40주년 행사와 관련하여 조직편성, 기금마련 방안 등 참석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원회를 마친 이병렬 회장은 “중대 회장과 임원들은 총동문회와 동기회 화합과 단결을 위해 항상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사 총동문회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20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0.3.1~4.16까지 기부현황 ※범례: 기간중 기부액(기부총액)

총 자산 77억 1천만원 (2020.3.31기준)

■ 단체/일반사민

3사55기 동기회(3,000), 대호브라이더(주) 1,000, 푸드크루(생도화관스백점) 100(500)

■ 3사관학교 발전과 함께하는 군기부

정한기(육사#39) 281, 최관규(육사#44) 211, 김호길(육사#48) 237, 김태욱(육사#51) 214, 두석주(육사#51) 2146, 이우진(육사#54) 248, 박기홍(육사#55) 2108, 이승규(육사#56) 128, 조상근(육사#56) 2122, 변용성(육사#58) 287, 손창호(육사#58) 256, 이귀현(육사#58) 281, 이주실(육사#58) 266, 차도완(육사#58) 139, 김대영(육사#59) 2150, 김진찬(육사#61) 251, 홍희중(육사#61) 283, 이한우(육사#63) 211, 오민경(육사#65) 226, 오보진(육사#65) 214, 홍인재(육사#65) 216, 문준호(육사#67) 131, 이찬우(육사#68) 226, 권성진(육사#69) 214, 이진호(학군#24) 168, 한덕수(학군#26) 283, 고성진(학군#31) 217, 구희근(학군#32) 290, 이두진(학군#35) 214, 유명근(학군#36) 162, 박홍렬(학군#37) 216, 송경재(학군#37) 2110, 조환희(학군#41) 123, 김재운(학군#43) 238, 김광운(학군#44) 236, 이종민(학군#44) 110, 정우람(학군#46) 214, 김태룡(학군#48) 228, 이세훈(학군#48) 219, 홍현신(학군#48) 217, 김민범(학군#49) 210, 나상철(학군#49) 111, 박동선(학군#49) 212, 최정훈(학군#50) 213, 구민수(학군#52) 168, 최재호(학사#29) 2110, 최용식(학사#33) 212, 이준수(학사#33) 294, 장태익(학사#46) 211, 김호근(학사#49) 112, 임도현(학사#54) 289, 구주현(학사#55) 212, 박수영(학사#55) 214, 성현애(학사#56) 232, 전여울(학사#58) 2140, 심정현(학사#58) 220, 김소현(여군#46) 219, 강소영(여군#49) 223, 이희정(여군#49) 223, 김형태(단기#22) 240, 김세영(단기#28) 229, 박승재(단기#30) 214, 강찬영(군중#61) 216, 정영진(교수#18) 119, 최은정(간호#38) 225, 송소연(간호#58) 216

▶ 부사관: 이각우(240), 전경익(254), 진장철(259)

▶ 군무원: 김인수(222), 류재운(2178), 안영주(228), 양성우(250), 유정호(23), 정혜란(27)

■ 졸업 · 재학생도 부모 ('20.3.1~4.16 기부자 현황입니다)

▶ 졸업생 부모(졸업기수/관계)

윤종택(#36윤호영 부) 10370, 김중순(#45김성수 부) 222, 조경해(#45황정대 모) 5725, 정순일(#49정진영 부) 4268, 성도모(#50성열환 부) 2172, 민순봉(#51박상우 모) 20230, 윤우상(#51윤형민 부) 274, 정경숙(#51한상화 모) 174, 김현미(#52오치원 모) 182, 이선화(#52정정현 모) 5545, 이영미(#52황성규 모) 3247, 정정화(#52조강현 모) 1325, 박일식(#53정필승 모) 494, 이영빈(#53오경철 모) 260, 조정숙(#53유영민 모) 492, 황경부(#53황순범 부) 20490, 김동주(#54김영일 부) 112, 윤명남(#54이희호 모) 5180, 전외순(#54전천지 부) 20420, 조은진(#54임정호 모) 126, 홍성은(#54홍동민 부) 1220, 박철(#55박호근 부) 375, 서완수(#55서지찬 부) 246, 유현구(#55유경운 부) 1115, 윤연희(#55조진석 부) 1020, 이강천(#55이석재 부) 2020, 정민섭(#55정준영 부) 2103

▶ 4학년: 고경욱, 김왕기, 김종기, 김현덕, 맹현주, 박현수, 신현진, 송학민, 임동근, 정희숙

▶ 3학년: 임승찬

■ 졸업생(개인) 참여현황 ('20.3.1~4.16 기부자 현황입니다)

- ▶ 1기 김용하 2(118), 남훈조 2(147), 민석식 1(101), 이기권 1(53), 임관택 2(64), 전수천 2(81), 최익환 2(66) ▶ 5기 김명찬 2(107)
- ▶ 9기 권영호 5(315), 김용채 2(22), 김현기 1(1138), 윤지환 3(93), 최병학 5(1,150)
- ▶ 14기 김종환 1(40), 안호 1(1,660), 하병욱 1(354)
- ▶ 15기 조서환 1(120) ▶ 16기 이종우 1(143), 황병태 4(286)
- ▶ 18기 구연덕 1(112), 금용백 6(522)
- ▶ 19기 이경희 1(155), 이종형 2(221), 이창호 6(528), 임영갑 2(150), 홍성식 1(181)
- ▶ 20기 김윤희 1(50), 박근순 1(131.4), 서진호 5(250), 조길상 2(60)
- ▶ 21기 신철수 2(652), 장달수 2(91)
- ▶ 22기 권순태 2(36), 이진성 2(244), 정경호 1(28), 조태환 2(120), 천병규 1(380)
- ▶ 23기 김창수 4(208), 김태일 2(213), 배요식 2(226), 신영찬 1(55), 오승욱 2(230), 정철재 4(104), 허강수 2(255)
- ▶ 24기 박종만 4(20), 권극락 4(282), 권오봉 1(197), 김도협 2(216), 남용구 5(246), 모경원 2(211), 박세철 2(58), 방성대 2(65), 안연준 1(78), 이문휘 2(79), 정정현 2(175)
- ▶ 25기 김남욱 2(118), 김민정 2(126), 문봉성 2(136), 손영기 2(112), 이은진 5(10), 이종현 2(35), 장광선 6(330), 장무수 2(33), 전희준 2(289), 조재희 2(107), 홍은표 2(185)
- ▶ 26기 신충인 2(165), 신태영 1(101), 유근환 2(19), 이완주 2(97), 이태인 4(30), 임우영 2(228), 장용빈 4(98), 홍순범 2(194)
- ▶ 27기 김덕중 2(52), 김지덕 2(6), 김호복 8(193), 석수열 1(28), 안병욱 2(153), 원희문 1(165), 이희순 2(223), 정월균 2(11)
- ▶ 28기 권승영 1(17), 권양철 2(92), 김진길 2(64), 김창현 2(151), 박기수 2(75), 박용섭 4(141), 서청수 2(156), 유정일 2(25), 윤석한 1(124)
- ▶ 29기 김강식 2(228), 김용식 2(58), 박성훈 2(137), 박태웅 2(116), 이상일 2(172), 이규구 2(99), 임성호 2(148), 최인섭 2(110), 최준호 2(4), 현대식 2(134)
- ▶ 30기 김백중 2(21), 김종권 2(68), 김효성 2(28), 남진우 2(39), 이경한 5(5), 이병길 2(3), 이진 2(133), 임상달 2(103), 주경호 2(97), 홍성범 2(21), 함민호 2(84)
- ▶ 31기 권동호 4(30), 김민식 4(66), 김영태 2(165), 김희엽 2(210), 박서호 2(4), 염할수 2(120), 이재준 2(194), 이훈복 2(32), 전경인 2(17), 최대집 2(30)
- ▶ 32기 권관덕 6(287), 김화웅 2(97), 송진수 3(50), 이태현 2(32)

▶ 33~54기 개별 기부현황은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www.kaayf.or.kr) 또는 『충성대첩』에서 확인바랍니다.

▶ 55기(신규 참여자)

★ 월5만원 원대연, 정인식

★ 월3만원 박준영, 김기섭, 김범수, 김성현, 백현우, 유성욱, 이석재, 이선진, 이승환, 이창훈, 임민수, 정구영

★ 월2만원 김호빈, 남한나, 박성환, 박이삭, 박찬경, 방성준, 설재훈, 신종모, 유경운, 이규동, 이지용, 이창민, 이태훈, 정부욱, 정한, 최원민, 하태웅

★ 월1만원

강근영, 강기호, 강대현, 강신행, 강재원, 강준모, 강채모, 고희환, 고성원, 고수훈, 고은비, 고태현, 공병규, 공우석, 박문호, 박미란, 박민석, 구성민,

권보일, 권윤한, 권현욱, 김강민, 김강인, 김경민, 김관웅, 김규종, 김규태, 김규환, 김근형, 김기동, 김기현, 김대선, 김도현, 김도형, 김동은, 김동하, 김동환, 김동훈, 김명석, 김문규, 김민상, 김민혁, 김민혁, 김범준, 김범준, 김병권, 김병준, 김병준, 김상규, 김상우, 김상혁, 김석민, 김석주, 김성수, 김성완, 김성희, 김승현, 김신성, 김연중, 김연태, 김영석, 김우준, 김우진, 김원식, 김원영, 김유란, 김우란, 김윤, 김재민, 김재민, 김재환, 김재환, 김재훈, 김정은, 김정호, 김정호, 김주혁, 김주혁, 김준, 김준겸, 김지영, 김지환, 김진영, 김찬섭, 김채훈, 김태균, 김태균, 김태우, 김태환, 김태훈, 김한기, 김한미루, 김현규, 김홍운, 김희훈, 나고은, 노영신, 노영창, 노홍욱, 두진성, 류정현, 문경환, 문현식, 민진홍, 박건영, 박경민, 박경환, 박광훈, 박동인, 박동주, 박민혁, 박범준, 박봉규, 박상현, 박세안, 박성민, 박성원, 박성준, 박승은, 박우진, 박윤식, 박재선, 박재혁, 박정재, 박정환, 박준규, 박준석, 박준선, 박준수, 박준우, 박준하, 박지웅, 박진성, 박진우, 박찬웅, 박창환, 박형우, 박형준, 박호균, 방승인, 백기태, 백승복, 백승현, 백종해, 백주현, 변남석, 변준영, 서광명, 서남기, 서석범, 서정환, 서지원, 서지찬, 석민우, 송규현, 송동현, 손백서, 손정원, 손태희, 손호진, 송근원, 송동혁, 송승용, 송재명, 송지홍, 송현식, 신규철, 신동휘, 신민창, 신민철, 신보훈, 신성호, 신재우, 신중우, 신창윤, 신호은, 신홍권, 신희주, 심준성, 심준우, 안보균, 안영모, 안재환, 안지현, 안호진, 양상민, 양우열, 양지환, 양현도, 양희윤, 여수환, 예병찬, 오경민, 오도건, 오동규, 오상재, 오상준, 오수현, 오정민, 오지훈, 원종우, 위승환, 유노현, 유동원, 유빈, 유세현, 유승호, 유재환, 유종완, 유지호, 유창근, 유홍재, 윤광진, 윤석찬, 윤성현, 윤세진, 윤영욱, 윤준엽, 윤진석, 윤형빈, 유민민, 이강산, 이규상, 이기수, 이다힘, 이동기, 이동현, 이동희, 이병진, 이병찬, 이병훈, 이상연, 이상우, 이상진, 이서호, 이석기, 이선우, 이승찬, 이수현, 이승구, 이승재, 이승준, 이승철, 이승현, 이영남, 이영호, 이용우, 이우정, 이원복, 이원희, 이우민, 이유원, 이윤성, 이은호, 이재형, 이정준, 이정혁, 이종구, 이지원, 이지향, 이지호, 이진한, 이찬우, 이창우, 이태형, 이현민, 이형중, 이효돈, 이희찬, 임명재, 임성민, 임시현, 임연성, 임연재, 임종민, 장세론, 장재용, 전민석, 전병환, 정성대, 정원준, 전희석, 정남규, 정다운, 정명환, 정문경, 정민우, 정성찬, 정용진, 정우현, 정재환, 정재훈, 정재훈, 정종혁, 정준용, 정준의, 정지용, 정지웅, 정진우, 정진희, 정찬웅, 정창록, 조국현, 조대근, 조민건, 조민성, 조민혁, 조영관, 조우영, 조재웅, 조종현, 조진석, 조현서, 조황수, 주시은, 주현규, 주호진, 지한솔, 진무경, 채정현, 최동형, 최수아, 최영일, 최원기, 최원빈, 최은규, 최재원, 최정호, 최준호, 최진택, 최원태, 하광철, 하태욱, 한금조, 한대희, 한상연, 한에나, 한은, 한태영, 한현수, 한혜진, 홍명기, 홍석주, 홍석진, 홍은진, 홍은표, 홍효준, 황동건, 황선우, 황선재, 황순홍, 황준경, 황태정

학교발전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자한분 한분의 소중한정성은 국방유수인재양성에 큰힘이됩니다.

학교발전기금 참여 안내

- 기부참여 계좌 :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 (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기록 요청 (054)330-3180, 3182, 평일 08:30~17:00
 - 계좌입금 시 기부자명의 기록은 띄워 쓰지 않아야 합니다
 - 졸업생 → 00기입금, 우인/단체 → 입금 후 재단 연락
 - 재학생 부모 → 57박조국부, 57기충성모 또는 3년경명예부/4년경준모
 - 졸업생 부모 → 00홍길동부 (숫자는 자녀의 기수를 의미합니다)
 - 세금정산용 기부영수증 발급 및 기타문의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strong smart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 양성!

2020. **4.27** (월) - **5.31** (일)


- 접수 : 인터넷 (www.univapply.co.kr)
- 문의 : www.kaay.mil.kr
(054)330-3701~02, 3710~11, 3720
- Instagram : [kaay_1968](https://www.instagram.com/kaay_1968)

2021학년도 정시생도(58기)

- 학력 : 4년제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연령 : '96.3.1 ~ '02.2.28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남·여

2022학년도 예비생도(59기)

- 학력 : 2·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3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 연령 : '97.3.1 ~ '03.2.28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남·여

— 호국간성의 요람 —
육군3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